

2020년



해외출장 가이드

호주 시드니 출장자료

【 목 차 】

I. 호주 국가 개황 01

II. 호주 체류 정보 06

III. 관할지역 및 관광지 14

IV. 호주 경제 · 무역 · 투자 21

V. 호주 주요 연락처 39





I. 호주 국가 개황

1. 일반 현황

국 명	호주 (Commonwealth of Australia)
위 치	오세아니아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 적	768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80배)
기 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행정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州 (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 빅토리아(Victoria) - 퀸즐랜드(Queensland) - 타즈매니아(Tasmania) - 남호주(South Australia) - 서호주(Western Australia) ○ 2準州 (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 준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 북부 준주 (Northern Territory)
지 도	
수 도	캔버라 (Canberra)
주요 도시	시드니(531만명), 멜버른(507만명), 브리즈번(251만명), 퍼스(208만명), 아들레이드(135만명), 호바트(23만명), 다윈(14만명) (2019년)



인 구	2,565만명 (2020년)
민 족	영국계(36.1%), 호주계(33.5%), 중국계(5.6%), 인도계(4.6%) 등
언 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 교	천주교(22.6%), 영국성공회(13.1%), 이슬람교(2.6%), 불교(2.4%) 등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een Elizabeth II 영국 여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여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여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Scott Morrison 총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5월 18일 개최된 제 46회 호주 총선에서 자유연합당이 승리를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 - 호주는 의원 내각제로 총리 임기 없음

2. 호주 국기와 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국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유니언 잭 : 영연방의 일원임을 상징 - (하단) 칠각 별 : 연방의 별(Star of Fed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6개 주와 준주를 뜻하는 7각 별 - (우측) 5개의 별 : 남십자성을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의 국장(Coat of Arms of Austral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7개 각을 가진 별은 연방의 별(Commonwealth Star)로 6개의 주와 테리토리를 상징 -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및 조류인 캥거루와 에뮤는 진보를 의미 - 배경의 나무는 노란색 아카시아 꽃나무로 호주 국화이며 호주 국가 색상인 금색, 초록색이 여기서 유래



3. 호주의 역사·정치·사회

□ 호주의 역사

○ 유럽인 출현 이전

- 최초의 호주 원주민(Aborigine)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대륙과 가깝게 근접 하였던 최소한 6만 년 전부터 살아온 것으로 알려짐. 호주 원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기보다는 수백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정착민 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원주민 수는 60~100만명 정도로 추정됨.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만 해도 호주 원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으며, 이에 1788년부터 백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였음.

○ 1800 ~ 1900년

- 17세기 초 네덜란드 및 포르투갈 인에 의해 호주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담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하고,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 호주 동부 해안인 BOTANY BAY에 상륙, 영국 영토로 선언함.
- 그 후, 1788년 A. PHILLIP 함장이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중 736명이 죄인)의 1차 이주민을 인솔하고 호주에 도착,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1823년부터 죄인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 6개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840년부터 죄인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됨.
- 1850년대 골드러시 기간 중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증가, 1857년도에는 그 숫자가 23,623명에 달해, 중국인들이 유럽인을 하인계급으로 타락시킨다는 공포가 팽 배해 급기야 백인들이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됨.

○ 1901년 이후 (연방)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6개의 식민지를 포함하는 연방정부가 수립되고 연방의회가 멜버른에 설치됨.
- 1913년 캔버라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하여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자치를 승인 받음.
-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함. 1971년 OECD에 가입되었으며 1975년 파푸아뉴기니가 호주에서 정식 독립되고 2018년 8월 24일 호주연방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이 30대 총리로 취임.



□ 정치 체계 및 현황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됨.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하여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연방정부 시스템의 上·下 양원제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됨.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먼저 제안이 가능.

- 국내정치 현황
 - 2019년 5월 18일 개최된 제 46회 호주 총선에서 자유국민연합당이 151석중 76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유력 승리 후보였던 노동당을 제치고 3번째 재집권에 성공함. 현 자유국민연합당의 당수는 스콧 모리슨 총리로 2018년 8월 24일 당권 경쟁서 승리하여 30대 호주연방총리로 선출된 바 있음.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치 및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직접선거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의 당수가 취임하게 되어 당수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임. 따라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호주는 총리의 임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사회 현황

○ 호주 인구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호주 인구는 약 2,565만 명으로 연령에 따른 인구 구성은 0~14세가 전체 인구의 19%, 15~64세(노동인구)가 64.9%, 65세 이상이 16.1%를 차지함.
- 2006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비중이 2050년에는 아시아계가 약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아시아계 호주인은 호주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중국, 인도, 필리핀 커뮤니티가 이민자그룹에서 상위를 점유함. 호주의 중국계 이민자는 120만명, 인도계 이민자는 62만명, 필리핀계 이민자는 30만명, 한국계 이민자는 12만명, 일본계 이민자는 7만명임.
- 중국계 호주인은 시드니에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 이어 4번째로 큰 인종계통(Ancestry) 구성원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사회가 호주 소비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됨.

○ 호주 근로환경

- 호주는 전 세계 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나라들 중 하나이며 2020년 7월 1일 부 회계연도 2020-21년 호주 시간당 최저임금은 전년(3%) 보다 낮은 1.75% 인상되어 19.84 호주달러임.
-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이며 이외에 추가 근무시간을 갖기도 하나 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이 지급됨.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 4주의 연차 휴가 및 연 10일 정도의 병가를 갖으며 1년 이상의 연속 근무를 마친 모든 피고용인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호주의 복지

- 호주의 공공 건강보험 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차액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정부기구인 센터링크(Centrelink)에 의해 관리되며 실업급여, 구직수당, 그 외 복지수당 지급을 관리함.



II. 호주 체류 정보

1. 비자 및 출입국

□ 비자

-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함.
-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기간은 3개월이며,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전자비자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며 ETA는 전자비자로서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음.
 - 호주 내무성 공식 ETA 온라인 신청 페이지: www.eta.homeaffairs.gov.au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020년 3월 20일 이후 모든 외국인 (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들의 직계가족 제외)의 입국 및 경유를 금지함. 2020년 10월 1일 기준, 해당 조치 해제 시점은 불투명하며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들과 점진적인 국경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입국절차

-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입국카드)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 창구에 제출, 입국카드는 기내 배부 및 입국 심사장에 배치되어 있으나 호주에 착륙 전에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임.
- 호주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SmartGate) 이용 시, 따로 입국 심사 창구로 갈 필요가 없으며,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입국카드를 세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됨.



- 2016년 6월 20일부터 호주 이민·국경보호부는 호주의 자동화 출입국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에 개방함. 해당 자동 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정된 15개 국가에서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함. 스마트게이트는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케언즈,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그리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이용이 가능

<스마트게이트 사용방법>

1단계 :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	2단계 : 스마트게이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여권을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 삽입 2)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스크린을 터치하여 답변 3) 모든 답변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 2) 바닥의 발모양 사인 위에 서서 정면 카메라 응시 및 사진 촬영 3)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기계에서 티켓 회수. 회수한 티켓은 체크인 짐을 찾은 후, 입국신고서와 함께 세관 담당자에 제출

자료원: 호주이민국경보호청

- 2020년 10월 1일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조치에 따라 입국 가능한 자(호주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들의 직계가족)의 경우, 입국하는 즉시 지정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함(주에 따라 격리비용 有). 이들이 출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을 시에만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적자는 허가 없이 출국 가능함.



□ 입국 시 통관 유의사항

- 식품, 목제품, AU\$10,000(US\$7,000)이상의 현금 휴대 시 공항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다고 반드시 기재 필요
- 통관 중 입국신고서에 미 신고한 품목 적발 시 벌금(약 US\$230)이 부과
-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
 - 포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중요).
 - 모든 식품은 밀폐 포장이 되고 내용 성분 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반입 허용
 - 입국 수속의 지연 및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주의
- 골프화(운동화)를 지참할 경우 입국신고서에 휴대하고 있다고 표기해야 하며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담배 25개피 또는 여연송(cigars) 25그램 이상 반입 불가

2. 기후 및 시차

□ 기후

-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함.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기후임.
- 연평균 강우량은 465mm로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음.

□ 시차

- 한국과의 시차
 - 1시간 (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8시)
 - 2시간(서머타임) 매년 10월 첫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4월 첫 일요일까지(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7시)
 - 퀸즐랜드주의 경우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과의 시차가 없음.



3. 환전

□ 환율 및 환전

- AU\$ 1 = 832.15원 / AU\$ 1 = US\$ 0.71 (2020.10.1. 기준)
- 공항, 시중 은행 및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은행이 환전소에 비해 유리한 환율이 적용되며, 공항이나 사설 환전소에서 환전을 해야 할 경우 소액을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전 금액이 클 경우 필히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이며, 환전 창구에서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요구하니 여권을 준비해야 함. 호주에서 원화는 환전할 수 없음.

4. 교통

□ 대중교통

- 버스
 - 다양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
 - 시드니 지역은 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 이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 가능.
 - 버스 내 현금으로 티켓 구매가 불가능해 교통카드 선구매가 권장되며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
 - 버스 이용 시 주의할 사항은 승차해야 할 버스가 정류장에 다가오면 손을 흔들어야만 정차한다는 점임.
- 트레인/메트로
 - 한국에서의 지하철을 호주에서는 트레인으로 부르며 지하철역도 트레인 스테이션임. 노선이 단순하여 출장자들의 이용도 권장되지만 방문상담이 있



거나 초행길일 경우 시간의 여유를 많이 두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의 트레인 스테이션 출구에는 번호 매겨져 있지 않고 출구가 위치한 거리에 따라 구분하므로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음.

○ 교통카드

- 시드니 지역은 대중교통카드로 오팔카드(Opal Card)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처럼 승하차시 카드를 리더기에 읽히도록 함. 오팔카드는 지하철역 창구 및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함.

□ 택시

- 시드니를 처음 방문해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됨.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택시 기본요금은 3.60 호주달러임.
- 시드니의 경우, 우버(UBER), 올라(Ola), 디디(DiDi)와 같은 공유택시가 활성화되어 있고 모바일 앱으로 이용 가능하며 도착지를 미리 선택한 후 이동, 이동 경로, 예상 도착 시간 및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



5. 공휴일(2020년, 2021년)

□ 호주 공휴일 (시드니)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휴일이 같으나 일부는 주마다 상이함. 시드니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 2020년 및 2021년도 공휴일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 명	2020년	2021년
신년 (New Year's Day)	1월 1일 수요일	1월 1일 금요일
건국 기념일 (Australia Day)	1월 27일 월요일	1월 26일 화요일
성 금요일 (Good Friday)	4월 10일 금요일	4월 2일 금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aturday)	4월 11일 토요일	4월 3일 토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unday)	4월 12일 일요일	4월 4일 일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Monday)	4월 13일 월요일	4월 5일 월요일
국군의 날 (Anzac Day)	4월 25일 토요일	4월 25일 일요일
여왕 탄생일 (Queen's Birthday)	6월 8일 월요일	6월 14일 월요일
*은행 휴일 (Bank Holiday) *일부 은행 및 회계 관련 기업만 적용	8월 3일 월요일	8월 2일 월요일
노동절 (Labour Day)	10월 5일 월요일	10월 4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금요일	12월 25일 토요일
**박싱 데이 (Boxing Day)	12월 26일 토요일	12월 26일 일요일
대체 휴일 (Additional Day) **박싱 데이 대체 휴일	12월 28일 월요일	12월 27일 월요일 12월 28일 화요일

자료원: 호주 NSW주정부

6. 문화적 유의사항

□ 생활

- 대형 마트를 제외한 일반 상점은 대부분 5~6시 사이 문을 닫는데 매주 목요일은 쇼핑데이로 지정되어 있어 상점들이 저녁 9~10시 까지 영업(지역마



다 상이).

- 주류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Liquor land, Dan Murphy's 등 전문 리쿼어샵(Liquor Shop)에서만 구매 가능. 만 18세 이상이어야 구매가능하며 성인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구매자 동행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아울러, 호주는 해변가 및 일부 야외에서도 주류소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음.
- 건널목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종종 시드니 시내에서는 경찰들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 무단횡단을 걸리게 되면 75 호주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함.
- 호주는 영국식 교통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한국과 반대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음. 처음 호주에서 운전을 할 경우, 현지 교통 방향 및 법규 등에 유의하여야 함.
- 현재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차가 정차 중이라도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337 호주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되며, 스피커폰으로 대화 시에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됨.

□ 복장

-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임. 여름은 12월에서 2월 사이이며 한국 여름과 달리 건조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호주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임. 겨울은 한국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일교차가 있어 밤과 이른 새벽은 한국 늦가을만큼 추우므로 겨울옷, 머플러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Tip

-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는 가격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팁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됨.



□ 전압

- 240V, 50Hz의 전기 규격 사용. 콘센트 구멍이 3개(Y타입)로 되어 있어 한국 전기 제품은 직접 사용할 수 없음.

□ 외국으로 전화 거는 법

- 일반전화: 호주에서 외국전화시 0011 누르고 국가번호 시작
- 수신자부담전화
 - 일반전화 또는 공중전화: 1800 007 548 번호 ▶ 6161# ▶ 상대방전화번호#
 - 호텔사용시: 0 ▶ 1800 007 548 번호 ▶ 6161# ▶ 상대방전화번호#



III. 관할지역 및 관광지

1. 뉴사우스웨일스 주(NSW)

□ 일반 현황

- 면적 : 80만 km²
- 인구 : 815만명(호주내 1위)
- 주도 : 시드니(Sydney)
- 주수상(Premier) : Gladys Berejiklian
- 주요 도시 : 뉴카슬(Newcastle), 포트맥쿼리(Port Macquarie),
울롱공(Wollongong),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 주요 특징

- 호주의 역사가 시작된 금융, 상업, 문화, 관광, 교육의 중심지
 - 현재 시드니 공항이 위치한 보타니 베이(Botany Bay)는 1770년 영국 선장인 제임스 쿡이 상륙하여 영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임.
 - NSW주는 호주 GDP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주 경제 규모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국가 경제보다도 큰 것으로 추정됨.
 - 호주의 금융, 보험 산업의 45%, 문화 산업의 50%, 제조업의 33% 가량이 NSW주에 분포되어 있으며 호주 주요 기업들의 본사뿐만 아니라 호주 및 대양주에 진출해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들도 다수 위치해 있음.
 - 동부 해안가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항구와 해변들은 호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호주인 들이 선호하는 주거, 여행, 레저 지역이며 내륙 지역은 국립공원과 와인 농장들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음.
- 사계절 기후에 해변, 스키장, 온천까지 갖춘 지역
 - 북쪽과 남쪽 지역의 기후는 고도와 위치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NSW주 남쪽으로 VIC주 경계 근처의 Thredbo는 스키리조트로 유명하고 북쪽의 Byron Bay는 겨울에도 따뜻한 편임.



2. 퀸즐랜드 주(QLD)

□ 일반 현황

- 면적 : 172만 km²
- 인구 : 516만명(호주내 3위)
- 주도 : 브리즈번(Brisbane)
- 주수상(Premier) : Annastacia Palaszczuk
- 주요 도시 : 케언즈(Cairns), 골드코스트(Gold Coast)

□ 주요 특징

- 농축산업, 관광업에서 광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달
 - 퀸즐랜드 주에는 호주 석탄광산이 집중돼 있어 해상 수송을 통한 전 세계 제철용 원료탄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호주 최대 농경 지대 및 목축지 보유로 소고기, 곡물, 각종 야채 및 과일의 주 생산지역이며 퀸즐랜드 농업은 주 경제에 연간 100억 호주달러 규모로 기여하고 있음.
 - 퀸즐랜드의 서쪽 내륙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편이나 2000년대 들어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으며 2019년2월 여름 발생한 대홍수는 그 복구에만 4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9년 홍수와 2020년 코로나로 주춤했던 퀸즐랜드 주의 노후한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외 국경이 개방되는 대로 관광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 호주의 세계적인 휴양지, 'Sunshine State'
 - 퀸즐랜드는 열대·아열대 기후로 평균 최저기온이 영상 20.6도여서 해외 관광객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휴가지로 인기임. 퀸즐랜드 전체 해안은 7,000km에 이르고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와 해양스포츠가 발달해 있는 골드코스트, 케언즈, 프레이저섬 등이 주 휴양지역임.



3. 서호주(WA)

□ 일반 현황

- 면적 : 252만 km²
- 인구 : 265만명(호주내 4위)
- 주도 : 퍼스(Perth)
- 주수상(Premier) : Mark McGowan
- 주요 도시 : 프리맨틀(Fremantle), 브룸(Broome)

□ 주요 특징

- 원주민 거주 지역이자 호주 최대 자원 보유지역
 - 서호주는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이 4만 여 년간 거주한 지역으로 유럽인들이 서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초임. 호주 다른 곳과 달리 죄수 유배지로서 시작하지 않은 지역이며 1890년대 서호주 중부와 남부 아웃백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함.
 - 호주 전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서호주는 철광석, 금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글로벌 기업인 BHP, 우드사이드 에너지, FMG 등의 광산기업들이 포진해 있음. 최근에는 세계 자원산업의 허브로 앞서나가고자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아웃백과 웅장한 해변이 어우러진 지형과 다양한 기후 분포
 - 서호주는 면적 대비 거주민이 적어 대부분의 지역이 야생의 상태 그대로임. 붉은 사막, 파도 모양으로 굳어진 거대한 바위, 사암 돔이 형성한 협곡, 원시림이 가득한 국립공원, 해양 생물들이 해변까지 다가오는 자연환경을 보유함.
 - 서호주의 북서부 지역은 아직도 미개척지이며 퍼스에서 남쪽으로 3시간 거리인 마가렛 리버 지역은 서호주 최대 와인 산지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동굴들이 밀집해 있으며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이기도 함.
 - 서호주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쪽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북쪽으로 갈수록 열대 사바나 기후대를 보임. 중부 내륙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대로 여름철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함.

4. 시드니 주요 관광지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1957.1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1973. 9에 완공됨.

매년 평균 약 3,000여회의 행사와 200만명 가량의 관광객 유치. 구조는 지붕 2,194개의 조립식 콘크리트 조각 350km의 강철선 지붕위 4,253개의 조립식틀 위에 1,056,000개의 타일이 배열, 지붕의 무게만 27,230톤임. 건물은 바다 밑 25m까지 잠겨 있는 580개의 콘크리트 받침대가 지탱. 전체 넓이는 2.2헥타이고 건물자체는 1.8헥타임. 콘서트홀, 오페라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됨.



○ 하버 브리지 (Harbour Bridge)

1932. 3. 개통, 시드니 거주자들은 "큰 옷 걸이"라 부름. 8차선 차도, 2차선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도보용 도로로 구성, 길이 1,149m, 높이는 해발 134m,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통과함. 양안 교각간 길이 503m, Arch 최고 높이 수면에서 134m이고, 수면과 교량 사이 평균 높이는 60m임. 통행료 연간 5천만 호주달러, Arch부분 수리예산 연간 5백만 호주달러임.



○ 시드니 항 (Sydney Harbour)

항구는 Middle Harbour, Port Jackson, Parramatta River, Lane Cove River, Iron Cov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ort Jackson이 중심수역임. 호주 이민 및 식민역사가 1778년 동 항만을 중심으로 시작됨. 맑은 수질과 굴곡으로 경관 수려, 외해와 완벽히 차단, 연중 폭풍우, 해일 피해가 전무하며, 조수 간만의 차도 미미, 지형상 수심이 깊고, 해저가 모래암(Sand Stone)으로 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과 맑은 수질 보존 가능함.



○ 하이드 파크 (Hyde Park)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 됨.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함.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로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 되었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음.



○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음. 1816년에 설립됨. 면적은 약 54헥타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 공원으로 애용됨.



○ 세인트 메리 대성당 (Saint Mary's Cathedral)

1868년에 짓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함.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 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지어졌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 었음. 중세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들로 이루어져 있음. 성당의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임.



○ 본다이 비치 (Bondi Beach)

시드니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해변으로 시드니 동쪽에 위치. 백사장이 10km 정도 이어져 있으며 파도가 높아 서핑의 명소로 알려짐. 해변가를 따라 이어진 캠벨 퍼레이드에는 쇼핑센터, 식당 등의 편의시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고 매주 주말에는 본다이 마켓이라는 벼룩 시장이 열림.



○ 타롱가 동물원 (Taronga Zoo)

1916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타롱가는 호주 원주민 언어로 ‘아름다운 물의 모습’이란 뜻이며 하버 브리지 북쪽, 모스만(Mosman)에 위치함.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은 타롱가 동물원은 서큘러 키(Circular Quay)에서 페리를 이용하면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연중무휴임. 약 30만 m²의 부지에 자리한 동물원에는 캥거루, 코끼리, 오리너구리 외 조류 및 파충류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음.



○ 블루 마운틴 (Blue Mountain)

시드니 서쪽 약 100km에 소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대협곡임.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임.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 관광열차 등이 있음.

□ 주요 음식점

○ 단지 (Danjee Korean BBQ restaurant) / 한식

- 주소 : 1-7 Albion Pl,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8084 9041
- 홈페이지 : www.danjeecom.au

○ 시드니 마당 (Sydney Madang Korean BBQ) / 한식

- 주소 : 371A Pitt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64 7010
- 홈페이지 : www.facebook.com/Madang2006 (페이스북)



- 킹스레이스 스테이크하우스 (Kingsleys Steakhouse) / 호주식(스테이크)
 - 주소 : 29A King Stree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95 5080
 - 홈페이지 : www.kingsleysauststeak.com.au

- 스시 앤 그릴 앳 요크 스트리트 (Sushi & Grill @ York Street) / 일식
 - 주소 : LG 119 York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64 7888
 - 홈페이지 : www.sushiandgrill.com.au

- 스시 테이 (Sushi Tei) / 일식
 - 주소 : 1 Chifley Square,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32 7288
 - 홈페이지 : www.sushitei.com.au

- 골든 센츄리 (Golden Century Seafood Restaurant) / 중식
 - 주소 : 393-399 Sussex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12 3901
 - 홈페이지 : www.goldencentury.com.au



IV. 호주 경제 · 무역 · 투자

1. 호주 경제 특징 및 최근 동향

□ 주요 경제 지표 및 무역 규모

연간 GDP	USD 1조 3,976억 (2019년 기준)
GDP 연간 성장률	1.8%, 세계 14대 경제규모
1인당 GDP	USD 53,825 (명목, 2019년 기준)
실업률	6.8% (2020년8월 기준)
화폐 단위	Australian Dollar (AUD)
환율	AUD 1.00 = USD 0.71 / KRW 832.15 (2020.10.1 기준)
외환 보유고	USD 45,585백만(2020년8월 기준)
교역 규모	수출: USD 2,709억 (2019년)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 수입: USD 2,137억 (2019년)
대한 교역 규모	○ (대한) 수입(2019년) : USD 8,371백만 (-15.19%) - 주요품목 : 자동차 및 부품, 석유제품, 건설중장비, 축전지 등 ○ (대한) 수출(2019년) : USD 17,574백만 (-0.67%) - 주요품목 : 철광·유연탄, 천연가스, 가축육류, 광물류

자료원: 세계은행(World Bank 2020), 호주 통계청(ABS 2020), Global Trade Atlas(2020)

□ 호주 경제의 특징

- 제조업 기반 취약, 서비스업 위주
 - 서비스업이 전체 GDP의 70% 이상 차지
 - 농업, 광업, 에너지, 금융, 의료, 교육, 관광 등 발달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비중>

구분	농림수산	광업	건설	제조업	금융업
GDP 비중	2%	10%	8%	6%	9%

자료원: 호주중앙은행 (Reserve Bank of Australia 2020)



○ 광업 부문

- 호주는 석탄, 철광석, 원유 등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는 광업 강국
- 2019년 기준, 호주 전체 상품수출액은 약 2,710억 달러이며 광업·에너지 수출이 1,850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68% 비중임
- 코로나19로 인해 석탄 및 원유 등의 수입실적은 주춤했지만 철광석, 금 가격 상승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10.0%), 생산량 세계 4위(8.0%)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29.0%), 생산량 세계 1위(36.0%)
- 매장량 세계 1위 : 금(19%), 금홍석(50%), 납(38%), 우라늄(34%), 아연(29%) 등
- 기타 : 보크사이트(매장량 2위), 코발트(매장량 2위), 동(매장량 2위), 리튬(매장량 2위) 등

자료원: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 (2019)

○ 농·수산·임업 부문

- 총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하며 전체 GDP의 2.2%(690억 달러) 점유
- 농·수산·임업 총수출의 86%는 아시아 8개국(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시장으로 수출됨

☞ 호주의 주요 농목축 자원

- 밀 : 60억 달러, 1,520만톤 생산
- 보리 : 30억 달러, 890만톤 생산(수출량 3위)
- 카놀라 : 10억 달러, 230만톤 생산
- 면화 : 10억 달러
- 소고기 : 130억 달러, 240만톤 생산 (수출 123만톤, 세계 2위)
- 양고기 : 40억 달러
- 우유 : 44억 달러, 88억 리터 생산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0), 농림자원경제국(ABARES 2020), 호주축산공사(MLA 2020)

○ 동부 해안 지대에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인구의 78%, GDP의 75.2% 점유

<호주 주요 주별 인구비중>

구 분	NSW	VIC	QLD	기 타
GDP 비중	32.6%	23.7%	18.9%	24.8%
(인구)	(815만명)	(668만명)	(516만명)	(566만명)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2020)



□ 최근 호주 경제동향

- 호주 경제성장률, 29년 만에 역대 최저 실적 기록
 - 산불 사태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OECD는 2020년 호주 경제성장률을 -6.3%*로 전망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 국면 진입
 - * Double-hit scenario(2차 확산 시) 기준, Single-hit scenario(2차 확산 없는 경우) -5%
 - 호주중앙은행(RBA)은 호주가 경제가 회복 초기 단계에 있으나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축세를 보이며, 2021년 성장률이 2%로 반등할 것이라 예측하면서도 최근 빅토리아주 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봉쇄조치로 경제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
-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한 호주 정부의 경기부양책
 - 호주 정부는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을 2021년 3월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연장하고 총 투입액을 1,013억 호주달러로 늘리는 등 고용지원책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일부 상쇄할 계획. 호주 노동인구의 30% 이상이 일자리 지키기 지원금 등의 고용지원금을 수급
 - 경기 부양 위해 주요 도로, 철도, 철광석 프로젝트를 포함한 15개의 우선 사업 승인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인프라 투자계획 발표

<호주 주요 경제지표 전망>

항목	OECD*		RBA		NAB	
	2020	2021	2020	2021	2020	2021
경제성장률(%)	-6.30	1.00	-4.00	2.00	-4.30	2.90
민간소비(%)	-9.50	1.10	-7.00	6.00	-	-
소비자물가지수(%)	0.10	0.70	1.25	1.00	0.60	1.30
실업률(%)	7.60	8.80	10.00	8.50	8.40	6.90
A\$/US\$ 환율	0.65	0.65	-	-	0.72	0.75

자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호주중앙은행(RBA), 내셔널호주은행(NAB)

- 한국 기업 시사점
 - 한-호주 FTA가 2014년 12월 12일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호주 수출 시 특혜 관세 및 비관세 혜택을 꾸준히 적용받고 있음
 - 호주는 한국 외에도 경쟁국인 중국(2015.12월), 일본(2015.1월)과 개별적인



FTA를 체결하여 가격 경쟁 심화

- 반면,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의 갈등 격화, 이에 대해 중국은 호주산 보리·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및 관광·유학 자제령 내리는 등 경제 보복 시행
 - 호주 내에선 중국 경제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호주 시장 진입 기회 모색 필요
 -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확대로 온라인 시장 수요 증가할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서비스 및 디지털 기술 등을 중심으로 수출 공략 강화 필요
 -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의 성공적인 예시가 된 것에 힘입어 의료기기, 바이오메디컬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출 고려
- 농·수산·임업, 관광업, 건설업 등 주요 분야의 부진
- 2020년 2분기 성장률(-7.0%)은 2008년 이후 역대 최저치
 - 호주통계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 하락(-15.5%), 서비스 소비 감소(-2.4%), 비광업 분야 기업 투자 하락(-6.6%), 민간소비 감소(-1.1%) 등이 성장을 크게 둔화했다고 분석
 - 산불 및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했을 때 호주 성장률은 프랑스(-5.3%), 독일(-2.2%), 영국(-2.0%), 캐나다(-2.1%)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
 - 코로나19로 인한 공급사슬 혼란 및 식당들의 급격한 수요 하락으로 랍스터, 소고기 와인 등 호주산 농수산 및 식품 수출 감소
 - 단, 기상청은 10월까지 강수량이 평년 대비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에 따라 호주중앙은행(RBA)은 밀·카놀라 등 겨울 작물 생산 상승이 가뭄으로 저조했던 농·축산물 생산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
 - 이동 제한 조치에 따라 소매서비스·관광·운송업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홈 엔터테인먼트, 가구 및 홈인테리어 상품 등의 매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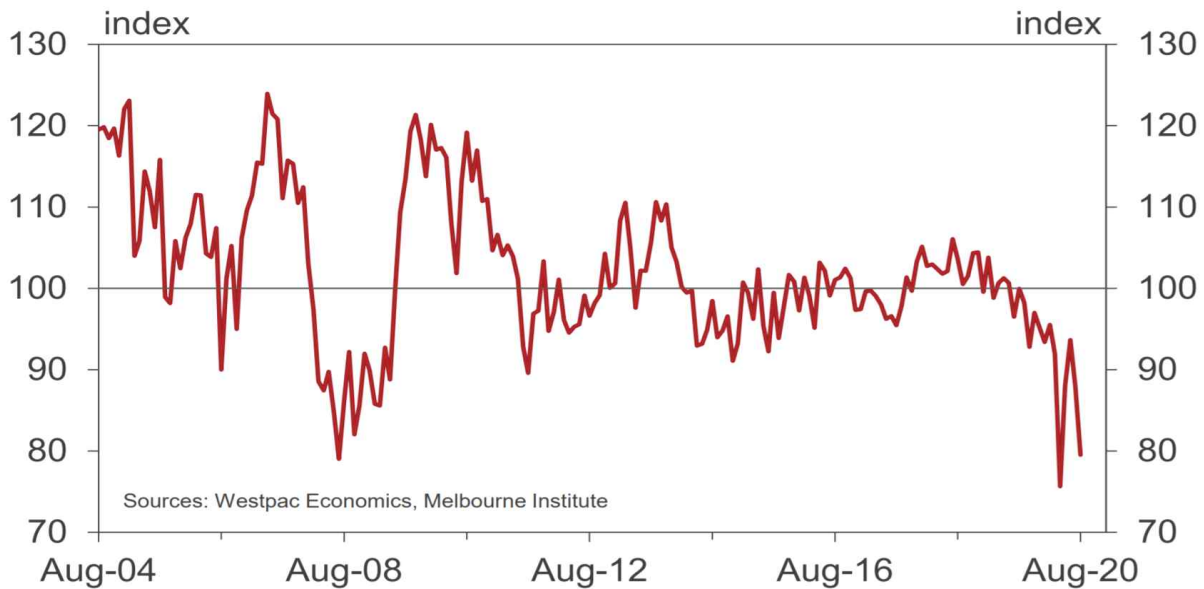
○ 부문별 동향

- 2020년 민간소비심리 수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최악 수준
 - 3월까지 지속 90대를 유지하던 민간소비심리 수치는 4월에 시작된 코로나19 봉쇄조치로 75.6(역대 최대 하락률(-17.7%))으로 소비심리 크게 위축. 5월에는 이동제한조치 완화로 수치가 다소 회복했지만 7월



- 빅토리아주의 2차 봉쇄령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 보임
- 주요 은행에서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하락세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 것이며, 소비심리가 과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 빅토리아주의 재확산이 없을 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 소비자 신뢰지수 추이: 101.3('16.2) → 99.7('17.3) → 105.1('18.1) → 99.69('19.1) → 93.4('20.1) → 75.6('20.4) → 88.1('20.5) → 79.5('20.8)

<소비자 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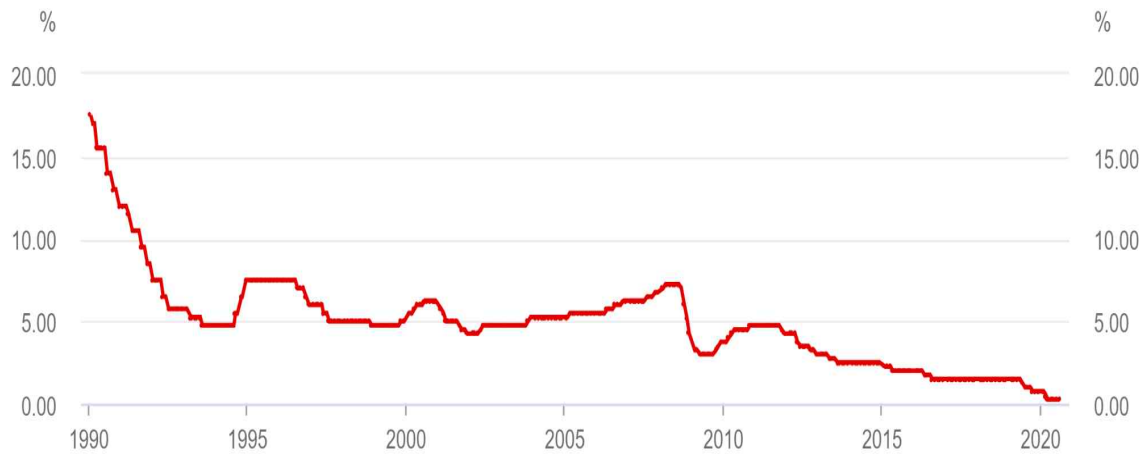


자료원: Australian Economic Reports (Westpac)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기준금리 역대 최저
- 2011년 11월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정책을 실시했고,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1%대였던 금리를 2020년 3월에만 두 차례 추가 인하(3월 4일 0.5%, 3월 20일 0.25%)를 감행하여 현재 8월까지 0.25% 유지 중
- 코로나19 확산 억제될 때까지 투자심리 위축 및 경기 침체 지속될 전망
- * 금리추이: 2%('16.4) → 1.75%('16.5) → 1.5%('16.11) → 1.25%('19.6) → 1.0%('19.7) → 0.75%('20.2) → 0.50%('20.3) → 0.25%('20.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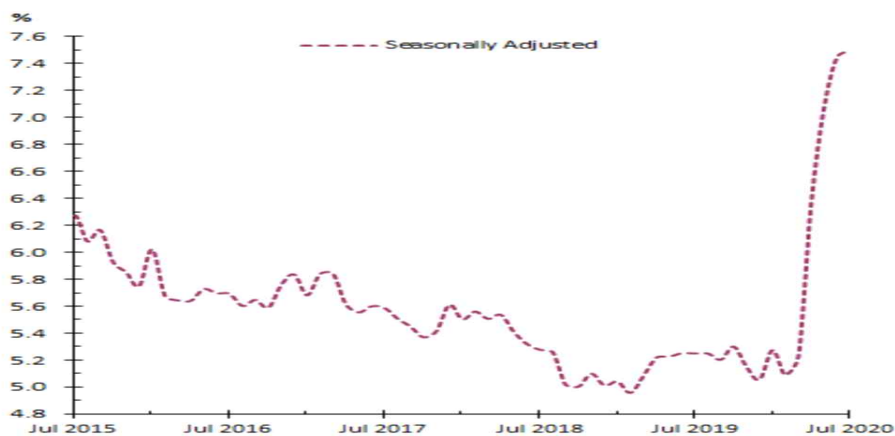
<기준금리 변화>



자료원: 호주중앙은행(RBA)

- 이동 제한조치와 비필수 사업 임시 폐쇄로 인한 실업 대란 가시화
- 봉쇄 정책으로 인해 숙박·관광·요식·운송업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호주통계청(ABS)은 7월 실업률이 3월(5.2%)에 이어 7.5%로 상승했다고 발표, 호주중앙은행(RBA)은 올해 실업률이 10%까지 악화한 후 내년에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망
- * 실업률 추이: 5.6%(‘16.10) → 5.9%(‘17.4) → 5.5%(‘17.10) → 5.6%(‘18.5) → 5.0%(‘19.1) → 5.2%(‘20.3) → 6.4%(‘20.4) → 7.1%(‘20.5) → 7.5%(‘20.7) → 6.8%(‘20.8)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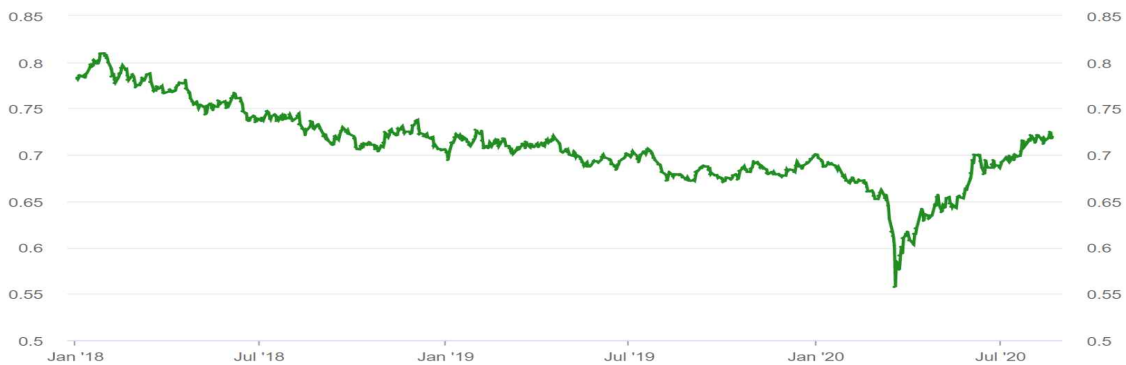


자료원: 호주 통계청(ABS)



- 코로나19 충격으로 호주달러 가치 최저 기록 후 이전 수준 유지
 - 지난 20년 사이 호주 달러화 가치 변동 심화
 - * US 대비 A\$ 추이 : 60%(2004) → 110%(2012-13) → 90%(2014) → 70%(2015-2020)
 - 코로나19 영향으로 호주달러는 2020년 3월 19일 0.55 미달러까지 급락한 후 4월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 0.70 미달러 수준을 유지

<US\$ 대비 AU\$ 추이>



자료원: 호주중앙은행(RBA)

-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호주 달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미·중의 갈등 격화 및 산불 사태로 약세를 보임. 코로나 위기가 안정되면 호주 달러가 점차 회복하여 강세 보일 것으로 전망



2. 무역 동향

(1) 호주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호주 교역 규모 2012년~2016년까지 지속 감소, '17년 기점으로 회복 추세
 - 2019년 호주의 전체 교역액은 4,847억 미달러로 '18년 대비 0.13% 증가
 -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 호주 4위 교역국
 - 2020년 1~7월 호주 교역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 동기비 약 11.30% 감소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미화 억달러)

순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1-7월
	전체	3,818	4,525	4,841	4,847	2,505
1	중국	1,050	1,255	1,433	1,581	874
2	일본	411	499	582	544	244
3	미국	304	318	330	353	215
4	한국	210	317	276	259	121
5	영국	129	99	90	155	79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수출입 동향

- 호주의 수출은 2015년까지 최근 4년간 지속 하락세에 있었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점차 호조를 보이고 있음. 2019년 호주 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5.4% 가량 증가한 2,710억 미달러임
- 수입은 2012년을 정점으로 2016년까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2017년부터 2년간 소폭 증가, 2019년 호주 총 수입은 전년대비 5.8% 가량 다시 감소한 2,138억 미달러임



<호주의 수출입 동향>

(단위: 미화 억달러)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1-7월
수출	1,925	2,311	2,571	2,710	1,402
수입	1,893	2,214	2,270	2,138	1,103
무역수지	32	98	301	572	299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 품목 및 수출 대상국

○ 주요 수출 품목

- 호주 주요 수출품이었던 곡류는 2018년부터 25% 이상 수출이 감소, 2019년 기준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남.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국제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광물성 연료,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의 수출이 감소함. 반면, 귀금속, 의약품, 특수지정상품은 2019년부터 지속 수출 증가하였음.
-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 불황에서 호주도 예외가 아니며 2020년 하반기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어 광물성 연료,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전자기계의 수출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기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 등은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미화 억달러, %)

순위	품 목	2018		2019		2020.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광물성 연료	911	30.29	878	-3.58	396	-25.21
2	광물	604	1.69	797	31.89	466	2.17
3	귀금속류	161	4.99	180	11.77	108	7.79
4	육류	100	11.57	113	12.83	59	-3.93
5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82	32.85	63	-23.26	29	-26.71
6	핵 반응기계	48	3.70	48	0.02	25	-9.99
7	의약품	30	17.10	38	27.15	21	2.45
8	특수지정상품	35	-21.11	36	4.05	24	13.43
9	전자기계	32	3.18	35	9.03	16	-14.23
10	곡류	49	-25.64	34	-29.52	22	-3.84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2020.1-7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출국

-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59% 이상을 차지함, 2018년까지 인도가 수출국 4위를 유지했으나 2019년 영국이 수출국 4위로 순위 상승함.

<주요 수출국>

(단위: 미화 억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1-7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878	34.16	1,030	38.03	567	40.45
2	일본	413	16.07	394	14.56	180	12.83
3	한국	177	6.88	176	6.49	88	6.25
4	영국	36	1.42	105	3.88	54	3.84
5	미국	97	3.77	103	3.79	82	5.83
6	인도	124	4.84	98	3.61	34	2.45
7	대만	78	3.03	89	3.28	42	2.97
8	싱가포르	73	2.84	83	3.05	38	2.74
9	뉴질랜드	72	2.79	71	2.61	36	2.53
10	말레이시아	55	2.14	62	2.29	28	2.02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 품목 및 수입 대상국

○ 주요 수입 품목

- 2019년에는 의약품 외 전 품목에 대한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광물성 연료, 자동차, 철 및 철강제품의 수입이 10% 이상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 호주 금 수입이 40% 이상 증가함. 그 외 전년도 감소 품목의 감소폭은 더욱 크게 나타났으나 경기 회복을 위한 산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광물성 연료, 전자기계는 소폭 수입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미화 억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핵반응 기계	318	10.48	306	-3.94	166	-6.59
2	광물성 연료	302	32.22	270	-10.79	98	-37.47
3	자동차	300	2.00	267	-11.11	115	-28.95
4	전자기계	256	12.03	244	-4.53	129	-4.53
5	의약품	82	3.78	84	2.44	52	3.50
6	광학 및 의료기구	83	6.23	81	-2.43	43	-8.02
7	귀금속류	66	-0.18	66	-0.13	49	37.75
8	플라스틱류	64	9.84	58	-8.50	35	3.90
9	가구, 침구 및 램프 등	48	9.39	46	-5.18	23	-7.09
10	철 및 철강제품	50	21.64	45	-10.80	25	-3.18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2020.1-7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주요 수입국

-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일본, 태국으로 상위 4개국인 전체 수입의 49%를 차지. 이 중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전체의 25%이상을 점유함.
- 한국은 2017년 對호주 4위 수출국이었으나 2018년부터 그 규모가 감소하여 2019년까지 6위를 차지함.
-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차질로 인하여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말레이시아가 수입국 6위로 상승해 한국은 수입국 7위가 됨.

<주요 수입국>

(단위: 미화 억달러, %)

순위	국가	2018		2019		2020.1-7월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1	중국	555	24.45	551	25.75	307	27.80
2	미국	233	10.28	250	11.70	134	12.13
3	일본	168	7.42	149	6.99	64	5.80
4	태국	111	4.91	103	4.83	52	4.75
5	독일	112	4.95	102	4.77	51	4.65
6	한국	99	4.35	84	3.92	33	3.01
7	말레이시아	96	4.25	76	3.57	37	3.33
8	싱가포르	85	3.76	72	3.36	29	2.65
9	뉴질랜드	59	2.58	54	2.53	28	2.51
10	영국	54	2.38	50	2.35	26	2.33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2) 한-호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2019년 대 호주 수출은 78억 미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7.9% 감소, 수입은 206억 미달러로 0.5% 감소, 무역수지 127억 미달러 적자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1~7월
수출	19,862(164.8)	9,610(-51.6)	7,891(-17.9)	3,232(-31.1)
수입	19,160(26.3)	20,719(8.1)	20,608(-0.5)	10,399(-11.5)
무역수지	701	-11,109	-12,717	-7,16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18년 대 제트유 및 등유과 건설중장비의 수출액이 증가한 한편, 2019년에는 각각 27.5%, -33.5% 감소
 - 2019년, 전반적으로 모든 석유 화학 품목들의 수출액이 감소하였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와 유가 하락으로 상위 10개 품목 수출액이 모두 감소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8		2019		2020.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승용차	2,119	-4.9	2,008	-5.2	914	-32.2
2	제트유 및 등유	1,555	40.9	1,127	-27.5	133	-81.5
3	경유	1,804	-9.0	1,065	-41.0	542	-27.2
4	휘발유	733	-24.3	530	-27.7	270	-28.7
5	축전지	138	-1.4	142	2.9	105	-2.3
6	합성수지	168	15.4	123	-26.6	74	-9.6
7	자동차부품	99	-15.7	118	19.1	52	-34.4
8	건설중장비	163	29.2	109	-33.5	67	0.9
9	알루미늄조각품	116	4.3	108	-6.9	69	-4.7
10	기타석유제품	105	19.6	94	-10.2	38	-33.3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2020.1-8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수입) 2018년 수입이 대폭 증가했던 천연가스, 원유의 수입이 2019년 감소
- 철광, 알루미늄괴, 동광은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증가 유지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순위	품목명	2018		2019		2020.1-8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유연탄	5,422	1.1	5,331	-1.7	2,375	-36.5
2	철광	3,405	-5.0	4,705	38.2	2,886	-4.2
3	천연가스	4,250	46.0	3,739	-12.0	2,133	-12.3
4	가축육류	1,247	7.0	1,267	1.6	868	-5.8
5	알루미늄괴및스크랩	729	-1.2	648	-11.2	464	6.6
6	기타금속광물	564	35.2	539	-4.4	378	1.1
7	동광	475	-21.3	510	7.4	431	40.6
8	원유	811	27.1	498	-38.6	242	-35.5
9	무연탄	372	14.4	411	10.6	189	-39.5
10	당류	432	-45.6	359	-16.9	163	-19.7

주: 순위는 2019년 기준, 2020.1-8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3. 투자 동향

(1) 호주 투자 동향

투자유치 현황

- 지난 3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 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19년 투자 유치액은 3조 8,445억 호주달러로 전년도 3조 5,656억 호주달러 대비 7.2%(2,789억 호주달러) 증가
 - 호주 통계청에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최근 국가별 투자유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9,837억 호주달러로 최대 투자국이었으며 뒤이어 영국, 벨기에, 일본이 순위에 랭크됨



- 한국의 대호 투자는 2019년 누적 314억 호주달러로 16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호주투자의 0.8%의 비중을 차지함

<2017-2019년 국가별 호주 투자현황(누계)>

(단위 : 미화 십억달러, %)

순위	국명	2017	2018	2019		지난 5년간 증가율(%)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1	미국	912.9	949.2	983.7	25.6	4.1
2	영국	498.4	584	686.1	17.8	6.8
3	벨기에	305.1	315.5	348.1	9.1	9.1
4	일본	226.5	233.9	241.1	6.3	4.8
5	홍콩	108.7	122.9	140.7	3.7	13.1
6	싱가폴	87.1	89.8	99.9	2.6	0.9
7	네덜란드	82	84.2	86.7	2.3	8.2
8	룩셈부르크	80.9	77.9	85.5	2.2	7.9
9	중국	64	68.2	78.2	2	0.7
10	뉴질랜드	45.6	47.1	64.4	1.7	10
16	한국	26.8	30.5	31.4	0.8	2.9
	전체	3,352.5	3,565.6	3,844.5	100	5.9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 5월 중
자료원: 호주 통계청, 외교통상자원부(2020.5)

□ **업종별 투자유치 동향**

- 호주 최대 투자유치 분야는 광산업
 - 2019년 전체 호주 직접투자금액인 1조 195억 호주달러 중 광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3,601억 호주달러로 전체의 35.3% 차지하며 이는 2위인 제조업의 12.9% 보다도 2.7배 이상 높은 수준
 - 3위인 금융/보험과 4위인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 순위 및 점유율은 전년도 대비 거의 변동 없음

<2015-2019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누계)>

(단위 : 미화 백만달러, %)



업종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775,282	844,488	896,885	994,323	1,019,483
1차 산업	317,977	342,403	351,394	376,185	363,440
농림수산업	3,209	3,279	3,569	3,163	3,383
광업	314,768	339,124	347,825	373,022	360,057
2차 산업	90,525	95,033	101,780	110,785	131,440
제조업	90,525	95,033	101,780	110,785	131,440
3차 산업	365,955	402,581	441,656	505,320	521,187
전기, 가스, 수도	15,926	15,834	20,402	22,157	21,736
건설업	17,511	19,566	23,161	20,293	18,056
유통 및 도소매업	52,847	54,177	56,723	60,640	60,315
숙박요식업	7,242	6,973	6,842	8,901	9,347
수송 및 창고업	21,171	25,826	22,020	23,033	23,347
정보통신	26,435	25,137	25,458	27,720	30,495
금융 및 보험업	63,683	68,860	79,061	114,131	113,166
부동산업	58,099	75,625	91,357	103,286	110,907
전문, 공학, 기술업	4,519	5,403	6,711	7,348	8,033
행정지원서비스업	1,555	3,773	4,073	7,433	7,941
공공행정	np	np	np	np	np
교육	np	np	np	np	np
보건 및 사회활동	1,779	3,529	3,984	3,857	3,369
예술 및 오락	np	np	np	np	np
기타서비스	np	303	np	np	np
미분류	95,188	97,575	101,864	106,521	114,475

주: 1) 'np' not available for publication (대외공개불가)

2) '-' nil or rounded to zero (없음 또는 '0'으로 반올림)

자료원: 호주 통계청(2019. 5.)

(2) 한-호 투자 동향

□ 한국의 대 호주 투자

- 2020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64건(385백만 미달러) 기록(20년 9월 기준)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제조 및 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평년 강세를 보이는 금융 및 보험업 및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
 - 투자금액 기준, 제조업 194백만 미달러, 광업 87백만 미달러, 부동산업 82백만 미달러



순으로 평년 기준 낮은 수준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20)는 신고 기준으로 2,212건, 214억 미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 150억 미달러, 금융 및 보험업 10억 미달러, 부동산업 23억 미달러, 제조업 11억 미달러 순

<한국의 대 호주 투자 추이>

(단위 : 미화 백만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08	142	57	654	580
2009	130	36	1,252	266
2010	115	39	767	1,171
2011	93	31	4,162	1,382
2012	84	27	4,408	2,237
2013	84	24	1,716	2,793
2014	72	15	844	1,673
2015	77	13	679	899
2016	118	38	1,595	1,306
2017	93	23	533	698
2018	144	30	303	473
2019	115	31	871	777
2020 (9월 기준)	64	15	385	385
누계(1980~2020)	2,212	795	21,423	15,821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대 호주 진출기업은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약 60개사 진출

연번	진출분야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지역
1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SW
2		한국가스공사	Kogas Australia	QLD, WA
3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NSW
4		한국광물자원공사	KORES Australia	NSW
5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ity Power Corp. Australia	NSW
6	건설	GS건설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7		YG-1호주법인	YG-1	VIC
8		대구텍호주법인	TaeguTec Australia Pty Ltd	VIC



9		삼성물산(건설)	Samsung C&T Corp.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10		일진호주	Iljin Australia Pty Ltd	VIC
11		포스코건설	POSCO E&C Australia Pty Ltd	QLD
12	자원개발	SK네트웍스자원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NSW
13		선메탈코퍼레이션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QLD
14		포스코	POSCO Australia	NSW
15		한국중부발전	KOMIPOA Australia	NSW
16		한화마이닝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WA
17		현대제철	Hyundai Steel Company	QLD
18	에너지	LG화학	LG Chem Australia	VIC
19		한화큐셀	Hanwha Q CELLS Australia	NSW
20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Australia	NSW
21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NSW
22	타이어	금호타이어	Kumho Tyre Australia	NSW
23		넥센타이어	Nexen Tire Sydney	NSW
24		한국타이어	Hankook Tyre Australia	NSW
25	자동차 부품	모트렉스	MOTREX	NSW
26		현대모비스	Mobis Parts Australia	NSW
27	전자	LG전자	LG Electronics Australia	NSW
28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NSW
29	전선	LS전선	LS Cable & System	NSW
30		대한전선	Taihan Electric Australia	NSW
31	종합상사	GS글로벌	GS Global Australia	NSW
32		LG상사	Bowen Investment (Australia)	NSW
33		롯데상사	LOTTE International Oceania	QLD
34		삼성물산상사	Samsung C&T Cooperation	NSW
35		포스코인터네셔널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NSW
36		현대종합상사	Hyundai Australia	NSW
37	식품	농심	Nongshim Australia	NSW
38		CJ 뉴트라콘	CJ Nutracon Pty. Ltd	QLD
39	의료기기	바텍글로벌	Vatech Medical	NSW
40		오스템	Osstem Australia	NSW
41	철도차량	현대로템	Hyundai Rotem	NSW
42	물류	글로벌비스	Glovis Australia	NSW
43		판토스	Pantos Logistics Australia	NSW
44		팬오션멜버른사무소	PanOcean Co. Ltd, Melbourne	VIC
45		현대상선	Hyundai Merchant Marine Australia	NSW
46	금융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Sydney Branch	NSW
47		신한은행	Shinhan Bank	NSW
48		우리은행	Wooribank Sydney Branch	NSW
49		한국산업은행	The Korea Development Bank	NSW
50	서비스	대한항공(주)	Korean Air	NSW
51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NSW



52		이노션월드와이드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NSW
53		현대홈쇼핑	Australian Shopping Network	NSW
54	방위/방산	한화디펜스	Hanwha Defense Australia Pty. Ltd	NSW
55	비료	슈퍼퍼트동부	Superfert Donbu	WA
56	헬스케어	종근당바이오	Pacificblue Health	NSW
57		셀트리온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NSW
58	IT	삼성SDS	Samsung SDS Global SCL Australia	NSW

□ 호주의 대 한국 투자

- 2019년 호주의 대한국 투자는 총 27건으로 신고기준 11억 미달러 기록
-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2018년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2017년 전무했던 운송용 기계 부문에 대한 투자가 17억 미달러로 대폭 증가했으며, 제조업 부문 역시 전년대비 268배 가량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이외 정보통신, 금융업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뒤를 이음
- 2019년 호주의 직접 투자는 미국(28.3%), 영국(16.1%), 뉴질랜드(3.7%) 등 영어 사용국에 48% 이상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약 0.9% 가량임
- 한편, 호주의 대한투자 누계('62-'19)는 신고기준으로 651건, 4,768백만 미달러에 달함

<호주의 대 한국 투자 추이>

(단위 : 미화 천달러, 건)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고건수	27	22	24	31	45	26	33	27
신고금액	152,569	50,491	139,833	85,193	79,157	142,330	2,007,357	107,573

자료원: 산업통상자원부



V. 현지 주요 연락처

주요 기관 및 긴급 연락처

기관명	대표자	전화번호	비고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강정식 대사	+61 2 6270 4100	캔버라 소재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홍상우 총영사	+61 2 9210 0200	시드니 소재
경찰(범죄신고)		000	
응급 구조대		000	
병원 응급실		+61 2 9382 7111	
대한항공	김재현 지사장	+61 2 9262 6000	시드니 소재
아시아나항공	김태완 지사장	+61 2 9260 4300	시드니 소재
퀀타스(Qantas)항공	-	+61 13 13 13	-
콜택시(St. George Cabs)	-	+61 13 21 66	-
콜택시(Legion Cabs)	-	+61 13 14 51	-

무역관 연락처

구분	성명	전화
시드니 무역관 Suite 4, Level 24, 1 Market St. Sydney NSW2000 Ph: 02) 8233-4000 / Fax: 02) 9264-5299	김병호 관장	+61 413 388 282
	이경석 차장	+61 421 646 928
	김보혜 과장	+61 421 312 626
멜버른 무역관 Level 12, 468 St. Kilda Road Melbourne VIC3004 Ph: 03) 9860-0500 / Fax: 03) 9860-0599	변용섭 관장	+61 452 161 511
	예광호 과장	+61 433 361 910



www.kotra.or.kr